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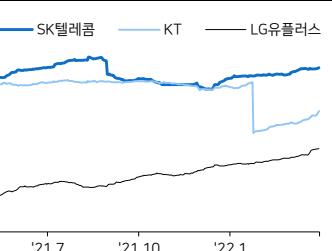
2022.4.4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0.4	1.0	-8.3	-9.3	11.0	11.0	1.1	1.1	1.9	1.9	
통신업종	1.6	5.7	6.9	-1.0	9.2	9.2	0.7	0.7	5.4	5.4	
SK텔레콤	0.4	4.2	0.0	1.4	11.0	9.4	0.7	0.7	5.9	6.0	
KT	4.3	14.6	20.3	14.1	8.4	7.8	0.6	0.6	5.4	5.8	
LG유플러스	0.0	6.1	2.6	-7.0	7.8	7.1	0.7	0.7	4.8	5.3	
AT&T	0.6	0.7	-2.5	-11.7	8.0	8.2	1.0	0.9	7.3	6.2	
Verizon	1.6	-3.7	0.3	-4.0	9.6	9.3	2.3	2.0	5.0	5.0	
T-Mobile	5.2	4.1	12.7	3.2	49.8	22.4	2.3	2.2	0.0	0.0	
NTT	0.3	6.7	14.6	16.6	11.4	10.6	1.6	1.4	3.2	3.4	
KDDI	-1.4	5.6	19.9	11.1	13.6	13.0	1.8	1.7	3.1	3.3	
Softbank	3.3	7.0	2.6	-13.2	11.8	9.5	0.8	0.8	0.8	0.8	
China Mobile	-1.0	3.1	15.7	16.1	7.5	6.9	0.7	0.7	8.3	9.4	
China Unicom	0.0	-7.4	-0.5	-1.5	6.0	5.4	0.3	0.3	8.2	9.7	
China Telecom	-1.0	1.0	19.3	19.3	8.0	7.0	0.5	0.5	8.1	9.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5.8% (+0.2%p WoW, +0.7%p MoM)

KT 41.1% (+0.5%p WoW, +1.3%p MoM)

LGU+ 37.0% (+0.1%p WoW, +1.0%p MoM)

통신3사, 외국인 순매수 기록

업종 코멘트

1. 전주 동향

3월 마지막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와 대비 +1.2%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KT, 주주총회에서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또한 1일 클라우드 ·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문기업 KT클라우드가 공식 출범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외국인은 통신3사 순매수

2.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1Q22 통신 3사는 마케팅 경쟁 완화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전망 KT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전망 5G 통신비 섹터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KT 주주총회	1 KT Cloud 분사 완료	2
3	4	5	6	7	8	9

3. 주간 뉴스

▶ KT, 지주형 회사 전환 속도낸다...올해 케이뱅크 · 밀리의서재 IPO 추진

(전자신문)

- KT,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지주형 회사로의 전환에 관심이 있다"며 공식 언급
- 각 자회사의 개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신사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
- 지난해 콘텐츠는 스튜디오자니 중심으로, 금융은 BC카드 중심으로 아래 케이뱅크 구조를 갖춘 상황
⇒ 올해 밀리의서재와 케이뱅크 IPO를 준비중이며, BC카드의 IPO 가능성도 높은 상황
⇒ KT가 지주형회사를 언급한 이유는 케이뱅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 KT SAT, 통신위성으로 동남아 디지털 서비스 돋는다

(ZD Net Korea)

- KT SAT, 말레이시아의 위성사업자 미아샛과 손잡고 서말레이시아 지역에 공용 위성인터넷을 제공
- 말레이시아 정부 주도로 통신 접근성 높여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 KT SAT이 동남아시아 정부 주도의 보편적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
⇒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해 전체 인공위성 시장의 30% 비중을 차지할 전망
⇒ KT SAT은 글로벌 인공위성 시장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

▶ LG CNS, 이음 5G 주파수 할당받아...지능형 공장서 활용

(매일경제)

- 과학기술정보통신, LG CNS가 신청한 이음 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완료
- 이음 5G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직접 구축하는 맞춤형 네트워크
- LG CNS는 지난해 12월 처음 이음 5G 등록을 마친 네이버클라우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등록
⇒ LG CNS는 28㎇ 대역 500㎇ 폭(28.9 ~ 29.4㎇)과 4.7㎇ 대역 100㎇ 폭(4.72 ~ 4.82㎇) 할당
⇒ LG CNS는 이음5G를 LG이노텍 구미2공장 내에 구축해 지능형 공장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KT클라우드' 출범...2026년까지 매출 2조 목표

(아이뉴스24)

- KT그룹 클라우드 ·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문기업 KT클라우드가 1일 공식 출범
- KT는 클라우드 · IDC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리해 클라우드 · IDC 사업 분야 자산을 출자
- KT클라우드는 오는 2026년까지 매출 2조 규모의 국내 최고 DX 전문회사가 되겠다는 목표
⇒ 국내 클라우드 · IDC 시장은 향후 5년간 CAGR 16%를 기록, 2025년 11.6조 규모에 이를 전망
⇒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 IDC 사업의 별도 법인화 선택

▶ '느림보' 美 5G, 속도 4배 뛰었다...비결은 더 빠른 '중대역' 주파수

(아주경제)

- 미국 버라이즌과 AT&T는 지난 1월 19일 C-밴드 주파수를 이용한 5G 네트워크 활성화
- 조사 결과에 따르면 C-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버라이즌의 다운로드 속도가 4배 이상 상승
- 다만 현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T모바일이 150Mbps로 가장 빠르고 버라이즌과 AT&T 순
⇒ 버라이즌은 C-밴드 주파수 5G 서비스를 1700개 이상 도시, 1억명의 이용자에 배포한 상황
⇒ C-밴드 도입으로 미국 5G 시장은 T모바일 독주 체제에서 3사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될 전망

▶ 중국 5G 가입자 8억명 육박...인기는 점차 시들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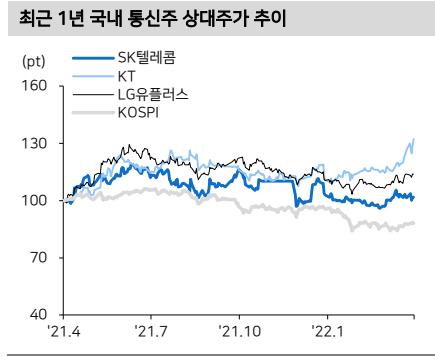
- 중국 3대 통신사의 전체 5G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7억 9,246명 기록하며 8억명에 근접
- 그러나 4G와 비교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면서 5G의 인기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 핸드셋 내 5G 점유율은 12월 81%, 1월 80%, 2월 76.5%로 3개월 연속 하락 기록
⇒ 다만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내 200만 개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5G의 인기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3대 통신사의 5G Capex는 올해도 증가할 전망

4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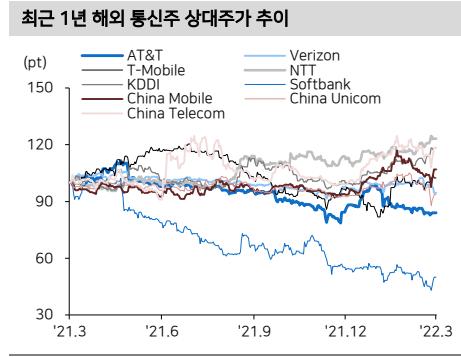
(집약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57,200	10.3	14.3	15.0	1.3	1.4	1.0	1.1	4.4	4.4	4.2	4.2	7.3	8.1
	KT	36,500	7.8	20.9	21.5	1.4	1.5	0.9	1.0	4.4	4.5	3.3	3.2	7.3	7.6
	LG유플러스	14,000	5.0	11.9	12.3	0.9	1.0	0.6	0.7	3.0	3.0	3.5	3.4	9.7	10.0
미국	AT&T	24.0	171.3	146.1	141.4	27.8	28.6	20.4	20.4	46.1	46.6	7.5	7.4	11.5	10.3
	Verizon	52.1	218.8	136.8	139.1	32.9	34.1	22.7	23.5	49.7	51.3	7.4	7.2	25.6	22.7
	T-Mobile	130.8	163.4	81.6	83.9	7.9	12.9	3.1	7.3	26.6	29.3	8.8	8.0	4.6	11.4
일본	NTT	3,611	106.7	99.6	100.8	14.5	15.0	9.3	9.7	27.5	28.2	6.6	6.4	14.6	14.3
	KDDI	4,030	75.8	44.4	44.8	8.7	8.9	5.5	5.6	14.8	14.8	6.0	6.0	13.8	13.4
	Softbank	5,578	78.4	49.6	51.5	2.8	10.9	7.6	7.6	12.7	16.8	18.9	14.3	7.6	6.7
중국	China Mobile	54.5	152.0	144.7	153.9	20.2	21.9	19.6	21.0	51.7	54.4	1.7	1.7	10.0	10.2
	China Unicom	3.9	15.2	55.0	57.9	2.1	2.4	2.5	2.8	15.9	16.5	0.6	0.6	4.8	5.3
	China Telecom	3.1	54.4	75.4	81.1	5.6	6.4	4.5	5.1	21.1	22.2	2.5	2.4	6.6	7.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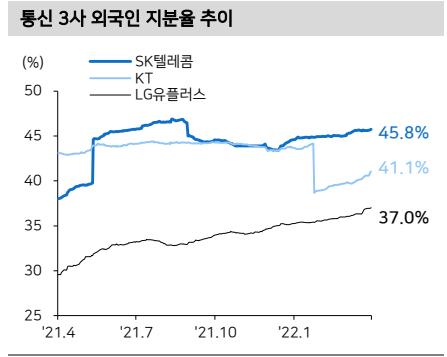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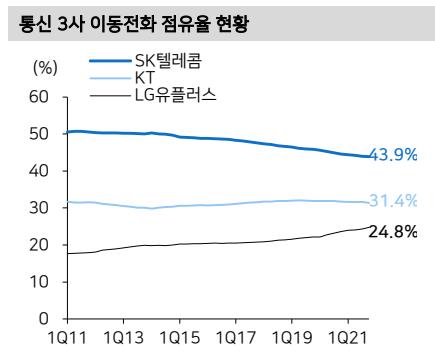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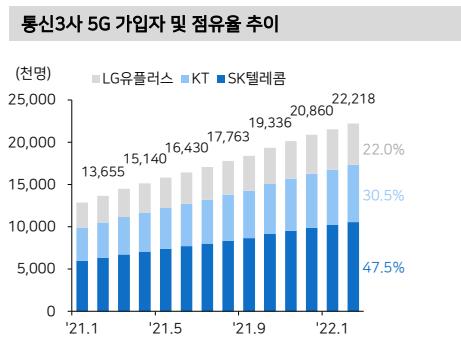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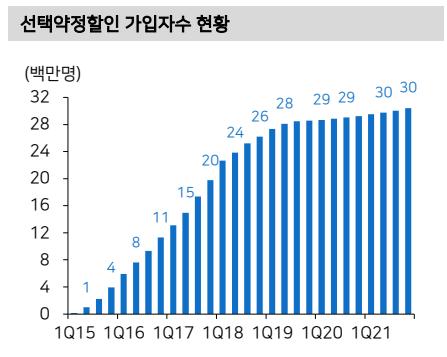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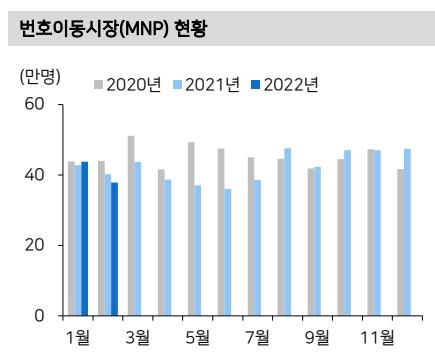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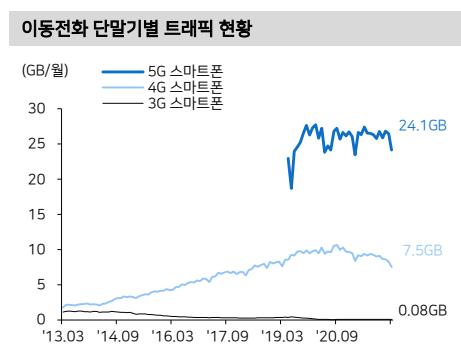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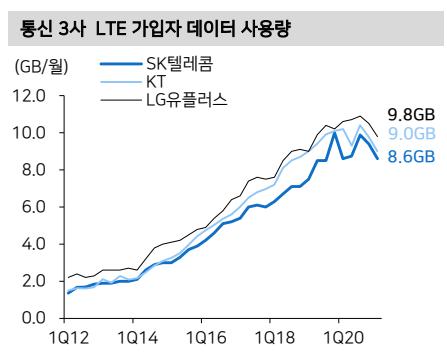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